

# 영어 듣기와 읽기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사례 연구

최미양

승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 교수

## A Case Study of a Blended Learning for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Class

Mi Yang Choi

Associate Professor, Baird Liberal Arts Colleg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듣기와 읽기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에서 학생들의 학습행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를 진단하는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은 Academic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과목을 수강했던 75명의 학생이며 연구도구는 2차례 실시한 설문이다. 연구 결과 영어듣기를 위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크립트를 보거나 교수 동영상 강의를 보고 듣기 퀴즈를 풀고 있었으며, 예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크립트 요약 과제의 경우 번역본을 찾아보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행태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별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교수 해설 강의에 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의 학습행태를 감안할 때 이 블렌디드 러닝은 면대면 수업에 비하여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수업, 학습행태, 영어 듣기, 영어 읽기

Abstract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a blended learning for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class by analyzing students' learning behavior. To this end, two survey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75 students from the two different classes of Academic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cours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in the online class, the students built undesirable learning behavior such as solving listening quizzes by reading listening scripts or watching the instructor's lectures about the scripts and completing the assignment of summary of the scripts by referring to the Korean versions. In the offline class,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and attention to lectures was goo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because of the students' poor online learning behavior, this blended learning was rather not effective. So the suggestions are discuss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blended learning for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Key Words : blended learning, online class, learning behavior, English listening, English reading

## 1. 서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대학은 교원들에게 이러닝 강좌와 블렌디드 러닝 강좌 개설을 권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향후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권장에 부응하고자 본 연구자는 2018년부터 영어 읽기와 듣기를 가르치는 교과목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시행하게 되었다.

블렌디드 러닝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혼합된 수업을 말한다. 그런데 블렌디드 러닝이란 용어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단순히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결합된 수업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면대면 지도가 포함된 방식과 면대면 수업에 테크놀로지 활용을 포함하는 방식도 모두 포함된다[1].

이러닝 수업에서 한 번의 오프라인 모임과 두 번의 온라인 채팅을 포함시킨 정숙경의 수업방식은[2] 온라인 수업에 면대면 지도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며, 면대면 수업에서 퀴즈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이광재의 수업방식[3]과 면대면 수업에서 조별활동 결과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최미양의 수업방식은[4] 면대면 수업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정숙경의 사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이광재와 최미양의 사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 블렌디드 러닝의 목표였다. 상호작용 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영화나 영상물을 활용한 영어수업[5-7]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과 면대면을 혼합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온라인과 면대면의 혼합에서 어느 한쪽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와 비교적 비슷하게 이루어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토의 교과목에서처럼 면대면 강좌에서 학습효과의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에서 추가 학습활동을 하는 사례[8]와 제한적인 수업 시간 때문에 학습자 간,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9]에서 볼 수 있다.

비슷한 혼합 비중인 경우에 있어서도 학기 중 기간별로 나누어 두 방식이 교체가 되는 경우(수직적 혼합)와 매주 규칙적으로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 시간을 배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수평적 혼합)가 있다[10]. 수직적 블렌디드 러닝과 수평적 블렌디드 러닝을 모두 다룬 앞

의 연구에 따르면 수평적 블렌디드 러닝의 수업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도 기본적으로 수평적 블렌디드 러닝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비슷한 비중으로 배치될 경우 두 수업 간의 연계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차운정과 김희진의 연구[11]는 온라인 수업을 면대면 수업의 복습보다는 예습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비교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온라인 수업에서 예습을 하도록 하는 교수모형에서 더 발전한 형태가 플립러닝이라고 할 수 있다. 플립러닝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온라인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를 적용하거나 심화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12].

이와 같이 교수 방법에 있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은 일반대학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거리 통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석하고 나머지 한 번은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2, 13]. 따라서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효과가 면대면 위주의 수업 못지않다면 학생들에게 주는 편의와 장차 가져올 교육적 비용 절감을 고려할 때 블렌디드 러닝 강좌는 일반대학에서 유용한 강의방식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효과를 검증해주었다.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하여 블렌디드 러닝이 면대면 수업과 이러닝에 못지않거나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14-18] 학습자 만족도 비교에 있어서는 면대면 수업에 못지않거나 더 만족스럽다는 연구 결과들[19-21]이 있다.

학업성취도와 학습 만족도 외에 블렌디드 러닝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주요한 주제로서 학습행태가 있다. 학업성취도와 학습자 만족도는 학습효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므로 그러한 결과를 만든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으나 학습행태는 학습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으로써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이러닝이나 온라인 수업의 학습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들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22-25].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발달로 인하여 로그 기록은 학습시간, 접속횟수, 학습순서 등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기록할 수 없는 학습자들의 학습행태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있

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행태에 대한 설문을 하여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파악하고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를 오프라인 학습의 학습행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닌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영어듣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행태는 어떠한가?

둘째, 오프라인 영어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행태는 어떠한가?

셋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행태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과 절차

###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Academic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이하 Academic English)를 수강한 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cademic English는 주 3시간 강의로서 주 1회는 오프라인에서 나머지 1회는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수평적 블렌디드 러닝이다.

본 과목은 교양선택 과목으로서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다양한 전공자와 모든 학년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구성은 1학년 16명(21%), 2학년 25명(33%), 3학년 18명(24%), 4학년 16명(21%)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비는 남학생이 36명(48%)이고 여학생이 39명(52%)이다.<Table 1> 연구 대상 전체의 영어듣기와 읽기 수준은 상, 중, 하로 나눌 때 중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할 때 교양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교양 필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Table 1. Participants

Grade	N(%)	Sex	N(%)
1st	16(21)	male	36(48)
2nd	25(33)		
3rd	18(24)	female	39(52)
4th	16(21)		

###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2018년 2학기에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은 8주차에 실시되었으며 2차 설문은 15주차에 실시되었다. 설문은 학교 LMS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참여자로 인하여 1차 설문 응답자는 72명이고, 2차 설문 응답자는 69명으로 연구 기간 학기에 등록된 수강생과 일치하지 않는다.

1차 설문은 모두 28문항<Table 2>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각 학습활동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점 척도이다. 2차 설문은 모두 6문항<Table 3>으로 학생들의 학습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서 선택형 질문 4문항과 개방형 질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은 단순 통계 분석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5점 척도 문항들은 평균점수를 구하였고, 선택형 질문들은 각 선택지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주제어 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구하였다.

Table 2. First Survey

Learning Activity	N	Type
Summary of script	4	5 likert
Online listening quiz	5	
Online lecture	5	
Text reading	5	
Group discussion	6	
Offline lecture	3	
Total	28	

Table 3. Second Survey

No	Question	Type
1	How regularly did you attend the online class?	multiple choice
2	Did you do oline learning activities all at once?	multiple choice
3	In what order did you do online learning activities?	multiple choice
4	How did you handle the difficulties in script summary?	open-ended
5	How did you handle difficult online quizzes?	open-ended
6	Was text reading time enough to you?	multiple choice

### 2.3 수업방식

Academic English 과목의 교재는 테드 강연을 소재로 만든 시중 교재로서 각 단원은 읽기 자료와 듣기를 위

한 테드 강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재용으로 쓰여진 읽기 부분은 어휘나 구문이 통제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무난한 수준이다. 하지만 테드 강연은 강연자들이 연결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구문, 어휘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배경이 다양한 강연자들의 특성상 영어 발음과 억양 또한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테드 강연 부분은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읽기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강의는 학교의 LMS에 탑재되었다.

### 2.3.1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 소재인 테드 강연들은 모두 학교 수업용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7분가량의 비디오로 편집되어 있다. 각 단원마다 읽기 부분이 테드 강연과 같은 주제로 되어 있어서 강연을 듣기 전에 학생들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강연자의 발음과 강연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아무런 준비없이 곧바로 시청하면 그 강연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테드 강연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스크립트를 읽게 하였다. 즉 테드 강연 스크립트를 읽고 우리말로 한 단락 정도로 요약하는 과제를 온라인 수업 첫 번째 학습활동으로 부과하였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테드 강연 시청이고, 세 번째 학습활동은 테드 강연에 대한 듣기 퀴즈를 푸는 것이었다. 온라인 수업 마지막 활동인 네 번째 학습활동은 교수의 스크립트 해설 강의였다. 테드 강연 영상과 교수강의 동영상의 경우 출석 인정이 되는 수강기간은 1주일인데 해당 주간 다음 주에 수강하여도 지각으로 처리되도록 설정하였다. LMS와 학교의 전자출결시스템이 연동되어 온라인 출석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때 출석에 반영되는 학습활동은 단지 동영상 형태로 된 것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들 학습활동의 출석 인정기간에 여유를 주었다. 그 대신에 과제와 퀴즈 제출 인정기간은 1주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매주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다.

### 2.3.2 오프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개별읽기 시간으로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예습을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 수업 시간에 먼저 그날 학습할 교재 본문을 읽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LM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조별활동 과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도록 권장하였다.

개별읽기를 마치면 학생들은 조별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활동 과제에 대해 서로 토의한 다음에 조별로 한 장씩 배부된 활동지에 답을 적도록 하였다. 조별활동은 각 조의 조장이 이끌었으며 활동지 작성은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말도록 하였다.

조별활동이 끝난 후 교수자가 조원 중 한 사람을 임의로 호명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게 하는 시간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교수자가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 3. 연구결과 및 논의

### 3.1 온라인 수업의 기본적인 학습행태

#### 3.1.1 온라인 강의 수강의 규칙성

먼저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규칙적으로 수강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Table 4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수강을 하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불규칙해진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수강을 하게 되면 기한 내에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습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26].

또한 학생들이 한 주에 수행해야 할 네 가지 학습활동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43%)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네 가지 활동은 순서대로 한꺼번에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을 나누어서 학습할 경우 학습활동 간에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학습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Table 4. Attendance of online class

Question	Reponses	N(%)
How regularly did you attend the online class?	Attended irregularly.	12(17.39)
	At first attended regularly and later irregularly.	23(33.33)
	At first attended irregularly and later regularly	7(10.14)
	Attended regularly.	27(39.13)
Did you do learning activities all at once?	Did all at once.	39(56.52)
	Didn't all at once.	9(13.04)
	Did irregularly.	21(30.43)

(participants=69)

3.1.2 온라인 강의의 수강 순서

온라인 수업의 학습활동을 어떤 순서대로 학습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약 45%의 학생들이 교수자가 의도한 순서대로 학습을 하였으며, 나머지 55%는 학습활동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순서를 지키지 않은 55%의 학생들 중에 약 25%의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학습 순서가 있었으나 나머지 30%의 학생들은 학습하는 순서가 매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Order of doing learning activities

Question	Responses	N(%)
In what order did you do learning activities?	In the order that the activities are uploaded	31(44.93)
	The order was irregular.	21(30.43)
	In my own order	17(24.64)

(participants=69)

3.2 온라인 학습행태와 오프라인 학습행태 비교

3.2.1 스크립트 요약 과제와 개별 읽기 활동

테드 강연 스크립트 요약과 관련한 학습행태에 대한 1차 설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스크립트에서 모르는 부분을 반복하여 읽는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3.65점이라는 것은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경우보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에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보내는지에 대한 문항의 평균점수인 1.97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Learning behavior for script summary

Question	M	SD
There are some parts in TED scripts I can't understand.	2.76	0.82
I read repeatedly the part I don't understand in TED scripts.	3.65	0.97
I ask to the instructor online about the part I don't understand in TED scripts.	1.97	0.93
I pass over the part I don't understand in TED scripts.	2.81	1.13

(participants 72)

따라서 더 구체적인 학습행태를 알기 위하여 2차 설문에서 테드 강연 스크립트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설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는 것은

몇몇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본 결과로서 테드 번역본을 찾거나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테드 번역본, 번역기, 교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스크립트를 학습하는 것을 비독자적인 학습으로 분류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전체 79건에서 32건으로서 40.51%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행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드 강연 내용을 잘 알아듣기 위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이러한 학습방식이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학습내용을 스스로 이해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학습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이는 교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혼자 학습을 할 때 생기는 단점을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able 7. Way of handling the difficult part of script

Learning type	N(%)
Focus on the context while passing over the part I don't understand	20(25.32)
Use dictionaries	18(22.78)
Use Internet search	11(13.92)
Read the Korean version	7(8.86)
Use a language translator	7(8.86)
Watch online lecture in advance	7(8.86)
Watch TED talk again	4(5.06)
Read slowly or repeatedly	3(3.80)
Send my question to the instructor	1(1.27)
None I don't understand	1(1.27)

(participants=79, multiple answers included)

Table 8. Learning behavior for individual text reading

Question	M	SD
There are some parts in the reading text I can't understand.	2.96	1.01
I pass over the reading part I don't understand due to time shortage.	3.00	1.22
I read the text while looking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2.71	1.15
I try to understand the reading without using the dictionary.	3.53	1.09
I take time to think about the reading part I don't understand.	3.24	0.98

(participants 72)

Table 8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별 읽기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평균점수가 3.24점인 다섯 번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읽기를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의 도움 없이 내용을 이해하려는 학습행

태를 지닌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문항을 보면 평균점수가 3.00점으로서 수업 시간에 텍스트를 읽을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설문에서는 개별읽기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10분 정도의 개별 읽기 시간이 충분했던 학생들은 약 28%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ime for individual text reading

Question	Responses	N(%)
Was text reading time enough to you?	Yes	19(27.54)
	No	13(18.84)
	It depends on my attention.	17(24.64)
	It depends on the reading.	20(28.99)

(participants 69)

설문 결과를 보면 온라인에서 스크립트를 읽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읽기 본문을 읽을 때 학생들의 학습행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을 찾지 않고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혼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읽는 시간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약 41%의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읽을 때 번역기를 사용하고 번역본을 보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개별읽기 학습의 경우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본문을 읽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 3.2.2 온라인 듣기 퀴즈와 조별활동 학습행태

온라인 듣기 퀴즈는 듣기 수업의 본 활동이고 오프라인 조별활동은 읽기 수업의 본 활동이다. 다음 Table 10은 듣기 퀴즈에 대한 1차 설문 결과이다. 첫 번째 문항에서 보듯이 평균 4.14점이라는 점수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듣기 퀴즈를 풀기 전에 듣기 텍스트인 테드 강연을 반드시 시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문항과 같이 퀴즈를 풀기 위하여 스크립트를 읽는 경우 역시 평균 점수가 3.10점으로서 듣기 퀴즈를 본래 의도한 방식대로 풀지 않는 학생들이 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항은 가장 바람직한 학습행태인 테드 강연을 다시 시청하는 경우는 평균 점수가 1.85점으로서 이러한 학습행태를 지닌 학생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설문에서 온라인 듣기 퀴즈를 풀 때 답을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Table 11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경우가 유추하여 답을 고른다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스크립트를 다시 본다는 것이었으며, 테드 강연을 다시 보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2회에 걸친 설문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교수자의 의도대로 맞춤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답을 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Learning behavior for solving online listening quizzes

Question	M	SD
I always watch TED talk before solving listening quizzes	4.14	1.15
I solve listening quizzes without watching TED talk.	1.97	1.17
I watch TED talk again when I have a difficult question.	1.85	0.97
I read the script of TED talk again when I have a difficult question.	3.10	1.46
I guess the answer when I have a difficult question.	3.53	1.12

(participants 72)

Table 11. Way of handling difficult listening questions

Question	Responses	N(%)
How did you solve difficult online listening questions?	By guessing	39(56.52)
	By reading the script again	25(36.23)
	By watching TED talk again	2(2.9)
	By sending a question to the instructor	1(1.45)
	By skipping	1(1.45)
	No difficult question	1(1.45)

(participants 69)

Table 12는 조별활동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첫 번째 문항(평균점수가 3.60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조별활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과제를 읽는 편이며, 두 번째 문항(평균점수 3.96점)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제의 답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문항(평균점수 3.93점)은 학생들이 조별활

동에 대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네 번째 문항(평균점수 3.49점)과 다섯 번째 문항(평균점수 4.06 점)은 학생들이 조원들과의 상호작용을 잘하는 편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 문항(평균점수 3.44점)은 조별활동을 통해 협동학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12. Learning behavior for group discussion

Question	M	SD
I read reading task before starting to read the text.	3.60	1.15
I read the text while looking for the answers of reading task.	3.96	1.20
I participate actively in making answers of the reading task.	3.93	0.84
I ask questions to group members about the part I don't understand.	3.49	1.04
I give some answers to the questions group members ask.	4.06	0.83
I got to learn something new during the group discussion.	3.44	0.83

(participants 72)

### 3.2.3 온라인 교수강의와 오프라인 교수강의

Table 13은 온라인 교수 동영상 강의에 대한 1차 설문 결과이다. 설문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교수 동영상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집중을 잘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일시정지나 반복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반복해서 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Table 13. Learning behavior for online lecture

Question	M	SD
I understand well the online lecture.	3.97	0.80
I pay good attention to the online lecture.	3.54	0.93
Sometimes I pause the online lecture to make a note.	3.14	1.15
Sometimes I watch repeatedly the difficult part to understand.	3.31	1.01
I have ever watched some online lecture more than once.	2.50	1.25

(participants 72)

Table 14. Learning behavior for offline lecture

Question	M	SD
I understand well the offline lecture.	3.94	0.80
The offline lecture helps me understand the reading text better.	3.90	0.84
Sometimes I miss some parts of the offline lecture.	2.68	1.00

(participants 72)

Table 14는 오프라인 교수강의에 대한 1차 설문 결과이다. 학생들이 대체로 교수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교수강의를 통해서 읽기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연구 결과 본 블렌디드 러닝 수업은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보다 학습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의 학습행태가 오프라인 학습행태에 비하여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주도하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혼자서 학습을 하므로 학생들이 규칙적인 수강과 정해진 순서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각 학습활동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영어읽기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읽기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 외에는 학습행태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온라인 수업의 경우 스크립트 요약의 경우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응답의 40.51%를 차지하고 있었고, 듣기 퀴즈의 경우 듣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읽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36%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맞춤학습이라는 온라인 수업의 목표가 무색한 학습행태를 형성한 학생들이 꽤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행태에 비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온라인 수업의 학습행태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고 모든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과 이러닝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블렌디드 러닝을 포기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영어 듣기와 읽기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행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교재 선정 시 테드와 같이 번역본이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텍스트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교재 선정 시 듣기 텍스트의 원어면 발음이 학생들이 알아

듣기 수월한 발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테드 강연처럼 알아듣기 까다로운 발음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먼저 읽는 변형된 듣기 수업을 시도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출석이 인정되는 수강기간을 지각없이 일주일로 제한하여 학생들에게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수강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수가 설계한 학습순서대로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LMS의 제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먼저 업로드된 학습활동을 이수하여야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섯째, 블렌디드 러닝 교수모형을 만들 때 읽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듣기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 교재 같은 경우 테드 강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듣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설계하였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듣기를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배치하고 읽기를 온라인 시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시간에 듣기를 하면 학생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되어 집중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읽기를 온라인 수업에 배치할 경우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읽기활동을 함으로써 예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즉 매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퀴즈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단지 출석 목적의 온라인 수강이 아닌 실질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어 듣기와 읽기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에서 본 연구자의 교수모형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향후 이와 유사한 교과목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하는 교수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성공적인 교수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교과목이 달라질 경우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영어 읽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배치하고 위에서 언급한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설계한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한 후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와,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읽기 활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문을 읽는데 소요된 시간을 직접 기록하게 하여 이러한 장치의 학습효과 및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 및 온라인 교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REFERENCES

- [1] H. Kwon, E. Moon, & I. Park. (2015). A meta-analysis on effects of blended learning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1(3), 333-359.
- [2] S. K. Jung.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blended learning model for cyber English classes at the college level.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3), 253-278.
- [3] K. J. Lee. (2011). The development and valuation of the blended learning system using interactive feedback.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6(1), 513-533.
- [4] M. Y. Choi. (2017). A study on the use of ICT for students' active class participation: focused on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419-428.
- [5] J. H. Park. (2005). A study on teaching English through movies: on the basis of the cultural context. *STEM Journal*, 6(1), 45-69.
- [6] J. S. Ok. (2012). An effective screen English teaching model: with an emphasis on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s and American cultures in Prime. *STEM Journal*, 13(1), 105-127.
- [7] M. Y. Choi. (2017) A study on the usage of smartphones for English listening ac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51-459.
- [8] T. I. Han & M. Y. Choi.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 blended TOEIC class on its student achievement in a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1), 231-240.
- [9] S. I. Park, S. E. Lee, & J. E. Song. (2007). Major factors influencing effective on/offline learning on the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5(1), 17-45.
- [10] J. Woo, B. Kim, & O. Lee. (2009). A study on the blended learning as an alternative of face-to-face learning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7(2), 219-225.
- [11] Y. Cha & H. Kim. (2011).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learners' views in online/offline business English classe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4(3), 11-35.
- [12] H. M. Kim & J. R. Kim. (2019). A meta-analysis of English education researches using blended learning and flipp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241-258.
- [13] J. Kim & H. Kim. (2012). Developing a blended



instructional learning model optimized for English teaching at off-line universities.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5(1), 135-155.

[14] C. Dziuban, J. Hartman, F. Juge, P. Moskal, & S. Sorg. (2006). Blended learning enters the mainstream. In C. J. Bonk, & C. R. Graham (Eds.),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s*. San Francisco, CA: Pfeiffer.

[15] M. S. Han. (2006). The effects of e-learning, b-learning and classroom learning on the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and the improvement of English proficiency. *English Education Research*, 18(2), 323-339.

[16] O. Lee. (2008). A study on achievement of blended learning and face-to-face learn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1-27.

[17] J. Utts, B. Sommer, C. Acredolo, M. W. Maher, & H. R. Matthews. (2003). A study comparing traditional and hybrid internet-based instruction in introductory Statistics classes. *Journal of Statistics Education*, 11(3), 1-19.

[18] D. K. Larson & C. Sung. (2009). Comparing student performance: online versus blended versus face-to-fac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3(1), 31-42.

[19] O. H. Lee.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learner's instruction of blended learning and traditional face-to-face learning in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41, 1-24.

[20] N. Vernadakis, M. Giannousi, E. Tsitskari, P. Antoniou, & E. Kioumourtoglou. (2012). A comparison of student satisfaction between traditional and blended technology course offerings in physical education. *Turkish Online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3(1), 137-147.

[21] C. C. Chen & K. T. Jones. (2007). Blended learning vs. traditional classroom settings: assessing effectiveness and students perceptions in an MBA Accounting course. *The Journal of Educators Online*, 4(1), 1-15.

[22] D. H. Han & B. Chun. (2015). Analysis of learning type factors that affect e-learning performance: centering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whole learners log and excellen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897-912.

[23] J. Kang. (2007). Evaluating learners' behaviors in a web-based instructional program.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2), 123-131.

[24] E. Lee. (2019). Analysis of learning behavior and effect factors on the completion of Open High School learners through learning analytic approach.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2(4), 29-54.

[25] S. Lee, K. Choi, M. Park, & J. Han. (2020). Investigating learning type in online problem-based learning: applying learning analysis technique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23(1),

77-90.

[26] Y. J. Joo, J. Lee, & S. Cho. (2012).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valu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8(1), 73-92.

최 미 양(Choi, Mi Yang)

[장학원]



- 1982년 2월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 1985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 석사)
- 2000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 박사)
- 2012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러닝학과 (이학 석사)
- 2003년 3월 ~ 2007년 2월 : 인천 국립 대학교 어학원 초빙 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영어읽기와 듣기, ICT 활용 영어, 이러닝
- E-Mail : hellobud@ssu.ac.kr